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3.14.(수) 총 2매(본문 2)	
담당 부서 용산공원추진단 공원정책과	담당자	•과장 김동준, 사무관 박영순 •☎ (02) 2131-2033	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국토부, 의견수렴 했다지만.. 공원부지조차 못봐(3.14)” 보도관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‘16년부터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계획수립을 강행한다는 여론에 따라 미래세대와 함께 긴 호흡으로 만들어 간다는 공원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,
 - 그 일환으로 작년부터 공개세미나(라운드테이블) 및 시민참여 행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감하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강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.
 - ‘라운드테이블’은 역사·도시·예술·조경 등 주제별로 총 8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작년 11월에 최종 완료되었습니다. 제시된 의견은 현재 용역진행 중인 ‘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’에서 반영여부를 검토 중입니다.
 - 앞으로 ‘기본설계 및 공원조성계획’ 용역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, 일반인, 전문가, 관련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용산기지내 출입은 현재 기지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미군측의 보안관계상 출입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은 어려운 실정이나,

- 미군이 조기에 이전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원 조성 전에 국민들이 기지 내부를 둘러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습니다.
- 국토부는 앞으로도 “역사와 문화,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대표 국가공원”으로서의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국민들과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(3.14, 조선일보) >

◆ 국토부 의견수렴 했다지만...공원 부지조차 못봐

- 라운드테이블에서 반년간 내놓은 의견 중 조성계획 수립에 반영된 것은 단 한건도 없으며
- 참가한 시민사이에서도 ‘공원조성과정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’는 비판, 사실상 전시행정이라는 지적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원정책과 박영순 사무관(☎ 02-2131-203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